

“광주가고 싶다, 내년 우승하자” KIA 브룩스, 풀타임에이스 약속

내년 2월 스프링캠프 앞두고 한국 돌아올 예정

120만 달러 재계약...내년 시즌 마운드 운용 큰 힘

“내년에 우승하자.” KIA 타이거즈와 재계약한 에이스 에런 브룩스(30)가 감사의 소감과 함께 내년 시즌 우승에 의욕을 드러냈다. 내년에는 풀타임 에이스로 활약하겠다는 의지였다. 브룩스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나와 우리 가족에 너무 잘해주어 감사하다. 우리 가족은 광주와 KIA에서 값진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내년 시즌을 위해 광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공

식 발표해 흥분된다”고 재계약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는 빨리 광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가족에게 보내주는 사랑과 성원에 너무 감사하다. 내년엔 우승하자! 화이팅!”이라며 내년 시즌 우승에 일조하겠다는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재계약에 대한 감사와 연말 팬들에게 보내는 에이스의 메시지였다. 현재 브룩스는 미국 캔자스시티에 머물며 눈을 크게 다친 아들 웨스턴

의 수술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내년 2월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한국에 돌아올 예정이다. 2주 간의 자가 격리기간을 감안하면 1월 중순께 입국할 예정이다. 브룩스는 KIA와 지난 11월 20일 브룩스와 연봉 100만 달러와 계약금 20만 달러 등 총액 120만 달러에 2021시즌 재계약했다. 옵션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성과와 이닝 등에 따라 수입은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KIA의 스토브리그 최대의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브룩스와 재계약에 성공함으로써 내년 시즌 마운드 운용에 큰 힘을 얻었다.

브룩스는 올해 23경기에 출전해 11승4패, 평균자책점 2.50의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KBO리그 최상급 투수라는 평가를 실적으로 증명했다. 그러나 가족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9월 중순 귀국하며 시즌을 조기마감했다. 동료와 팬들은 웨스턴과 가족의 쾌유를 기원하는 해시태그 운동을 했다. 구단도 각별한 공을 들였으며 이에 브룩스는 고마움을 표시하며 재계약했다. 메이저리그와 일본리그 구단들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KIA에 남았다. 김희기자



류현진과 한솔밥?...美매체, 김하성 토론토행 예상

FA 전체 6위로 평가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노리는 김하성(25)이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함께 뛰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블리처리포트는 13일(한국시간) 워터미팅이 끝난 이후 주요 FA 순위를 매긴 뒤 그들의 행선지에 대해 예상했다. 해당 순위에서 김하성은 6위에 올랐다. 블리처리포트는 “김하성은 KBO리그에서 뛰는 7시즌 동안 파워히터 유격수로 활약했다. 통산 133개의 홈런을 쳤고, OPS(출루율+장타율) 0.866을 기록했다. 올 시즌에는 30개의 홈런을 때려냈다”며 “그의 나이는 만 25세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MLB 사무국은 이달 2일 30개 구단에 김하성에 대한 포스팅을 공시했다. 김하성은 계약 마감 시한인 내년 1월 1일 오후 5시까지 30개 구단과 자

유롭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블리처리포트는 “MLB닷컴의 T.R.설리번 기자에 따르면 텍사스 레인저스가 김하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MLB 네트워크의 존 모로시는 토론토가 김하성 영입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토론토는 팀 에이스인 류현진과 김하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김하성의 속마음을 알아보려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들은 류현진과 김하성이 저녁식사를 함께 한 사실에 적잖은 의미를 두고 있다. 최근 김하성의 요청으로 류현진과 김하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김하성은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후 “류현진 선배와 소고기를 먹었다. 계산은 류현진 선배가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토론토에는 보 비셋이라는 확실한 유격수가 있다. 이에 대해 블리처리포트는 “비셋이 3루수나 외야수



로 이동할 의향이 있다면, 토론토는 라인업에 또 한 명의 흥미로운 젊은 타자를 추가할 수 있다”며 포지션이 김하성의 토론토 행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

스노보드 김상겸, 시즌 첫 월드컵 평행대회전 8위

이상호, 39위 그쳐

김상겸(31·하이원리조트)이 2020~2021시즌 첫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대회에서 8위에 올랐다. 김상겸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린 2020~2021 FIS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전체 66명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스노보드 알파인 대표팀 마형민 김상겸은 예선 1, 2차전에서 합계 1분16초35를 기록해 전체 1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두 명이 맞대결하는 본선 16강전에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2관왕 박 와일드(러시아)를 만난 김상겸은 0.18초 차로 승리를 거뒀다. 김상겸은 현재 세계랭킹 3위인 미르코 펠리체티(이탈리아)와 대결한 8강에서 완주하지 못하며 4강 진출에 실패, 최종 8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상겸이 월드컵 대회 8강에 오른 것은 2017년 3월 터키 카이세리 월드컵 대회에서 4위에 오른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마친 뒤 김상겸은 “예선 1

차전은 출발 순서가 늦어 힘들었는데 2차전에 빨리 출발하면서 감이 좋았다. 그만큼 레이스도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블루 코스가 눈이 좋지 않아 힘들었고, 그만큼 아쉬움도 크다. 다음 대회에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봉민호 대표팀 감독은 “올 시즌 실상훈련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어색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실상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배추보이’ 이상호(25·하이원리조트)는 최종 39위에 머물렀다. 이상호는 1차 예선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1차 예선 상위 32명이 진출하는 2차 예선에 나서지 못했다. 최보근(29·경남스키협회)은 38위, 조완희(22·영남대)는 49위에 머물렀다. 여자부에서는 정해림(25·경기도스키협회)이 18위에 그쳐 아쉽게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이정은(27·광주스키협회)은 34



한국 스노보드 알파인 대표팀의 김상겸. (사진=대한스키협회 제공)

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 남녀부 우승은 각각 폴랑 피슈날레(이탈리아), 에스터 레데츠카(체코)가 차지했다. 김상겸과 정해림이 월드컵 대회 30위 내에 들면서 한국은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알파인 종목 기본 쿼터 남녀 1장씩을 확보했다. 한편 스노보드 알파인 대표팀은 17일 이탈리아 카레차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회에 출전한다. 김민정기자

대한항공, KB손해보험 잡고 1위 수성



프로배구 대한항공. (사진=KOVO 제공)

대한항공이 KB손해보험을 꺾고 선두 자리를 지켰다. 대한항공은 12일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KB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3-2(25-21 25-27 25-23 30-32 15-10)으로 승리했다. 4연승을 올린 대한항공은 시즌 11승4패(승점 30)를 기록해 2위 KB손해보험(10승5패·승점 29)과의 격차를 벌였고 대한항공은 이번 시즌 KB손해보험과의 맞대결에서 2연패 뒤 첫 승을 신고했다. 대한항공 임동혁은 서브에이스 2개, 블로킹득점 1개를 포함해 30점을 올렸다. 임동혁은 중요한 순간에 결정력 있는 공격력을 선보이며 승리를 이끌었다. 공격성공률도 51.92%로 높았다. 5세트에서 맹활약을 펼친 정지석과 광승석은 각각 22점, 13점을 기록해 공격을 거듭했다. KB손해보험은 외국인 선수 케이타(48점)를 앞세워 1위 탈환에 나

섰지만, 아쉬움을 남겼다. 2연패를 당한 KB손해보험은 3위 OK금융그룹(10승3패·승점 27)에 추격을 허용했다. 대한항공의 출발은 좋았다. 대한항공은 1세트에서 비에나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한 가운데 정지석, 임동혁, 진지위, 광승석 등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했다. 중반부터 리드를 잡아 KB손해보험의 추격을 따돌렸다. 반격에 나선 KB손해보험은 2세트에서 케이타를 앞세워 대한항공 진영을 맹폭했다. 그러나 세트 막판 대한항공의 견고한 블로킹 벽에 막혀 역전을 허용했다. 전열을 정비한 KB손해보험은 듀스를 만든 후 25-25에서 케이타의 오픈공격과 정동근의 블로킹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케이타는 2세트에서만 13점을 올려 분위기 반전을 견인했다. 대한항공은 3세트에서 다시 승기를 가져왔다. 13-13에서 임동혁의 백어택과 진성태의 블로킹, 광승석의 서브에이스 등으로 4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후반까지 리드를 지킨 대한항공은 24-23에서 임동혁의 후위공격으로 3세트를 챙겼다. 승기를 잡은 대한항공은 4세트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임동혁은 중반 이후 주 득점원 역할을 하며 16-15에서 임동혁의 2연속 득점과 황승민의 서브에이스로 점수차를 벌렸다. 그러나 KB손해보험은 경기 후반

케이타의 활약을 앞세워 듀스를 만든 후 펠리 끝에 승부를 5세트로 몰고갔다. 대한항공은 5세트에서 힘겹게 상대의 추격을 따돌렸다. 6-5로 앞선 상황에서 임동혁의 백어택과 정지석의 백어택에 힘입어 8-5로 앞선 상황에서 케이타의 공격 범실에 편승해 9-5를 만들었다. 경기 후반 정지석과 임동혁의 공격이 불을 뿜으면서 승부를 갈랐다. 여자부 KGC인삼공사는 대전 총무체육관에서 벌어진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3-1(16-25 25-17 31-29 25-14)로 역전승을 거뒀다. 2연승을 올린 4위 인삼공사(6승7패·승점 17)는 3위 IBK기업은행(6승6패·승점 19)을 맹추격했다. 인삼공사는 이번 시즌 현대건설과의 상대전적에서 2승1패로 우위를 점했다. 인삼공사 외국인 선수 디우프는 36점을 올려 승리에 기여했다. 지민경과 최은지는 각각 14점, 10점을 올리는 등 맹활약했다. 혈투 끝에 3세트를 이긴 인삼공사는 4세트에서도 디우프의 고공폭격을 앞세워 승리했다. 디우프는 승부의 분수령인 3세트에서만 13점을 몰아쳤다. 현대건설은 3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시즌 3승9패(승점 9)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현대건설은 루소(19점)와 정지운(16점) 등 주전 선수 5명이 두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김희기자

남자농구, 아시아컵 예선 내년 2월 필리핀에서 개최

필리핀·인도네시아·태국과 한 조 편성



한국 남자농구가 내년 2월 필리핀에서 2021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예선 조별리그 잔여 경기를 치른다. FIBA는 12일 내년 2월에 열린 예정

인 아시아컵 예선 조별리그 일정과 개최지를 발표했다. 한국이 속한 A조는 필리핀의 클라크에 모여 잔여 일정을 소화한다.

서선욱기자

‘코로나19 회복’ 황희찬, 올해는 못 된다...“천천히 복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라이프치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회복했지만 올해는 그라운드에서 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치히 구단은 12일(한국시간) 선수단 소식을 전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황희찬은 아직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천천히 복귀를 준비할 것이다”며 “새해 전에는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황희찬은 지난달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기간에 축구대표팀에 합류해 오스트리아 원정에 동행했다. 두 번째 경기였던 17일 카타르전을 마친 뒤, 소속팀 복귀를 앞두고 가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선수단에 합류하지 못하고, 격리와 회복에 집중했다. 울리안 나겔스만 라이프치히 감독은 베르너 브레멘과의 11라운드 대결을 앞두고 “황희찬이 처음 일주일 동안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 복귀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